성전 건축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이번 주 묵주기도 중 기억할 분들 (11월 9일 ~ 11월 15일)

월	구정숙 루시아, 이연자 테오도라, 박영숙 안젤라, 최화실 수산나, 김상우 요셉, 김복순 리나, 임성수 야고보, 한춘예 아녜스, 정정화 엘리사벳, 김윤희 베로니카, 김정윤 트리포니아, 박은재 루치아, 김정길 바울리나, 유호옥 요안나, 성정숙 젤뚜르다
화	이유진 로사, 이정진 요나, 유호금 로사, 최돈랑 율리안나, 하경남 실비아, 윤명부 데렌시오, 최동예 베로니카, 유연성 헬레나, 김명주 율리안나, 유승수 도비아, 김진숙 모니카, 박건주 마르첼라, 정완수 티모테오, 김정자 베로니카, 김인숙 아녜스
수	이정자 데레사, 김봉기 마리안나, 조무연 가브리엘, 조금자 베네딕다, 김금자 로사, 주영자 막달레나, 권공자 마리아, 이상붕 사도요한, 박옥금 안나, 이동훈 토마스아퀴나스, 김장순 엘리사벳, 김시윤 율리안나, 임해숙 임마누엘라, 이태희 리디아, 이명순 루실라
목	위연희 안나, 최영란 아녜스, 유연화 로사리아, 정청자 엘리사벳, 김남영 발레리아, 김영숙 베로니카, 원유복 마리아, 신선홍 라파엘, 황규원 요셉, 최원익 알비노, 임정인 안젤라, 석주아 이사벨라, 석지현, 김금자 리디아, 이성노 라자로
금	배호 갈렙, 강경희 올리바, 경옥희 에스더, 지은수 사비나, 엄두용 라파엘, 김병조 요셉, 최연주 엘리사벳, 박선화 아델라, 홍희식 다니엘, 박오병 비오, 김정성 베네딕도, 위교자 아가다, 박진호 벤자민, 김세종 프란치스코, 한상숙 골롬바
토	정진숙 세레나, 최원섭 대건안드레아, 김은미 마리로사, 김찬기 라파엘, 차창호 십자가의 요한, 권대희 그라시아, 김영수 요한, 김희석 그레고리오, 양승녀 세실리아, 나금순 루시아, 강은희 모니카, 백옥식 다리아, 최정숙 베로니카, 이효심, 이수영 데레사
주일	홍상기 바오로, 정진수 도로테아, 조홍기 마지아, 임영선, 김만배 이냐시오, 김정자 율리아, 유순희 멜라니아, 안은주 모니카, 김용자 안젤리나, 김정연 마리아, 이정민 안토니오, 정슬기 소화데레사, 오일록 데뜨비노, 김윤호 대건안드레아, 권재은 율리엣다

우리들의 정성 모든 성인 대축일

주일 헌금	914,000	주일헌금(송정)	186,000	교무금	1,665,000
양성, 복지, 원로	105,000	미래 기금	65,000	감사헌금	

교무금 이성희, 정동주, 신정호, 이원일, 최원석, 김성엽, 정구호, 조성근, 윤영진, 최은희, 김종광, 나철순, 김승례, 박희명, 허연구, 이명희, 박광열, 신성철, 김성현, 김윤자, 소옥선, 전지선, 권오순, 박갑성, 정현희, 최윤정, 장혜분, 지금예, 권병연, 양금례, 이정자, 류재선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7명 중 주일미사 175명 참례 / 참례율 : 24.41%

평일미사	토 (10/31)	월 (11/2) 본당/내촌/두촌	화 (11/3)	수 (11/4) 본당 / 송정	목 (11/5) 송정 / 본당	금 (11/6)
	11명	36명/20명/12명	18명	17명 / 12명	9명 / 28명	11명
주일미사 (11/1)	내촌공소	토요일 저녁	두촌공소	송정공소	교중미사	철정공소
	22명	30명	17명	26명	61명	19명

성산 갈바리아의 성 십자가 성당
SEONGSAN CATHOLIC CHURCH
연중 제32주일·평신도주일
2026.11.08 | 별지 제185호

제59회 평신도 주일 강론

환대, 함께 걷는 교회의 시작 -2027 서울 WYD를 함께 준비하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느새 2026년도 끝을 향해 가고, 전례력으로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제59회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평신도 주일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평신도가 더 많은 봉사를 하자고 결심하는 날이 아닙니다. 평신도 주일은 세례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는 동시에, 서로에게 다가가 함께 길을 걸으며 세상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드러내도록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만큼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넘어,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은 무엇인지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소중한 기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7년 여름, 서울에서 세계청년대회(WYD)가 열립니다.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리 곁을 찾아올 것입니다. 비그리스도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적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젊은이들을 우리 곁으로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기도 합니다. 평신도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한국 교회의 신앙과 오랜 문화, 그리고 그 안에서 맺어온 열매를 나누며 보편 교회의 풍요로움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황님과 함께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신앙 안에서 삶을 비추는 빛을 찾는 자리입니다. 이 대회는 몇몇 담당자의 노력만으로 준비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 계획하고, 다른 사람들은 맡겨진 일만을 수행하기만 하는 행사도 아닙니다. 청년과 장년과 노년, 평신도와 수도자와 성직자가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각자의 몫과 책임을 나누며 함께 준비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시노드 교회를 살아가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시노드 교회는 '함께 걷는 교회' 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주님의 뜻을 함께 찾으며, 세상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태도는 '환대' 입니다. 환대는 낯선 이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내어주는 친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 안에 다른 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환대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 주는 이야기가 루카 복음에 나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에서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 뒤 희망을 잃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걸으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고 자신들의 일에 끼어든 낯선 이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그분을 멀리하지 않았고 곁을 내어 드리며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곧바로 그들을 가르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며 그들의 실망과 슬픔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두 제자가 마음속 이야기를 모두 쏟아놓을 때까지 같은 걸음으로 곁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성경 말씀을 풀어 주시며 그들이 겪은 일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여전히 낯선 동행자로 여겼던 예수님께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함께 걷던 낯선 이를 자신들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벗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자 마침내 제자들의 눈이 열렸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방향을 돌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자 그들이 떠나온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환대가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실망한 제자들의 곁으로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셨고, 제자들은 낯선 동행자에게 자신들의 머물 자리와 식탁을 내어 드렸습니다.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의 곁을 내어주는 가운데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본 그들은 새로운 기쁨과 사명을 품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엠마오의 여정은 우리가 시노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세계청년대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노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경험과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은 편안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낯선 사람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과도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배우고 그 만남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곁을 내어줄 때 진정한 친교가 시작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친교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명을 살아가는 토대이며, 시노드 교회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따라서 환대는 시노드 교회의 출발점이자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젊은이들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선물로 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이를 맞아들이는 동안 우리도 소중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청년들을 통해 신앙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날 청년들이 품은 질문을 들으며, 익숙함에서 벗어나 감사함으로 가득 찬 신앙의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환대는 환대받는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는 사람의 마음과 삶도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일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스테이를 생각하는 가정이라면 가족끼리 기대와 걱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당에서는 정해진 일을 전달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청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다양한 이들의 이야기를 고루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와 이웃에게 협력을 청할 때에도 행사의 중요성만 설명하기보다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걱정하는지 먼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만남들이 쌓일 때 우리는 단지 큰 행사를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함께 걷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다른 세대의 경험을 존중하며,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끝까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멀어진 이들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인가' 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교회, 먼저 듣고 함께 길을 찾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청년들이 머물 자리가 생기고, 잠시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돌아올 자리도 마련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복음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가 한 사람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미처 듣지 못했던 가족의 이야기, 교회 안에서 쉽게 지나쳤던 청년의 질문,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멀리했던 이웃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 봅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 함께 걷는 그 길 위에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하고 말하며 마음과 삶의 자리를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길로 보내 주실 것입니다.

2026년 11월 8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성전 건축 기금 현황 2026년 11월 6일 기준

구 분			이번 주	2026년 누계
수입	우리 본당	교무금 납부시 건축기금	195,000	12,524,000
		약정 기부	2,480,000	171,860,000
		2차 헌금	656,000	12,101,950
		기타 수입		27,717,463
	외부 모금	타본당 모금	6,407,000	306,212,336
		매일미사	4,550,000	131,393,160
		평화방송	13,535,000	312,702,209
		가톨릭 평화 신문	950,000	23,541,000
		가톨릭 신문	2,930,000	66,940,000
		ARS 후원		12,132,470
		기타 후원		22,550,000
	합 계		**31,703,000**	**1,099,674,588**
지출	건축	설계비		36,041,570
		건축 준비비		14,930,000
	모금 홍보	광고비	6,600,000	84,251,200
		모금 준비비	912,000	13,750,560
		봉사자 지원비		4,366,160
	합 계		**7,512,000**	**153,339,490**
현 잔액			**1,613,183,014**	

본당 약정기부 약정기부 148세대 196,220,000원 중 171,860,000원 납부 (납부율 87.58%)
김준희, 정하숙, 박순우, 이원석, 박갑성, 류재선, 용봉숙, 권오순, 이승윤, 김승옥, 최삼순, 김후태

타본당 모금
스무숲성당 887,000원 박찬애, 구정숙, 양춘숙, 최미선, 길종식, 이연자, 이순희, 이정환, 황환천, 김은숙
죽림동성당 120,000원 정소순, 박영숙 **교동성당 190,000원** 김상숙, 박인숙, 이유찬, 김영숙, 이명숙
철원성당 400,000원 최화실, 김상우 **퇴계성당 1,760,000원** 이희연, 이영순, 신연옥, 김현중, 노정희, 이광복, 이성욱, 김진영, 이용례, 홍희정, 진웅균, 유금상, 박인천, 백우영, 안혜수, 최준호, 김옥화
응암동성당 3,050,000원 나유환, 강동우, 유미선, 한덕순, 이준익, 임명희, 박정희, 정태두, 박시원, 임수복, 최화연, 최순희, 황인성, 황인경, 오지현, 김기임, 박채옥, 이종임, 양동구, 김영숙, 이유순, 김정미

매일미사 유명경, 민정기, 신현범, 김영숙, 최찬옥, 최현진, 박병규, 전학연, 천병환, 안종훈, 이홍림, 김홍래, 전은숙, 노언정, 배동모, 구정은, 최선주, 문희자, 임종국, 정재월, 임옥자, 홍석일

평화방송 반주원, 안둘자, 박준영, 우화숙, 김정희, 이호순, 공화선, 박정순, 이명수, 한상용, 김옥인, 이경자, 이민자, 이시현, 김무원, 정상영, 김숙희, 유환영, 채종호, 이효순, 이병우, 박민규, 이성희, 임영태, 안형신, 김경분, 김선도, 안정희, 고주석, 고재명, 이지연, 박용진, 송정숙, 우윤지, 김화강, 최우영, 정길분

가톨릭신문 이애숙, 김태희, 현은자, 정종숙, 정금희, 윤종임, 이옥자, 김다현, 김종욱, 김수은, 문현정, 최흥열, 박충서, 장상숙, 노창현, 정선복, 오수영, 이석헌, 이진희, 이충미, 백지현, 박연화

가톨릭 평화 신문 오순일, 김지혜, 윤태상, 성숙원, 이건, 윤정숙, 차대식, 유재형, 한춘순, 조충식, 권지중

지출 -
광고비 가톨릭신문 11월 3,300,000 매일미사 1월 3,300,000
모금 준비비 ARS 시스템유지비 88,000 엄나무작업 장비대여외 824,000

레지오 훈화 2-7.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의 -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 (2)

성모 승천에 관한 호의적인 신학적 분위기와 마리아 신심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교의 선포에 힘입어 '성모 승천' 교의를 선포하도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예수회 신학자 필로그라시는 성모 승천 신앙의 근거로서 성모의 모든 덕성과 역할과 특권, 곧 마리아의 '하느님의 어머니 되심', 완전한 동정성, 온전한 성성, 원죄 없이 잉태되심, 그리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일치를 신학적 근거로 종합하였다.

성모 승천은 예수님 승천과 라틴 말 용어상 구별된다. 그러므로 과거 우리나라는 성모 승천을 '몽소승천'으로 표현하였다.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을 능동적(Ascensio, 올라감)으로 표현하고, 마리아의 승천은 수동적(Assumptio, 올림을 받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곧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셨다는 것이다.

마리아의 승천은 마리아께서 구세사의 목표, 곧 구원에 이르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인간이 하느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셨음을 뜻한다. 여기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위치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에 거룩하게 되셨고, 그 목표인 구원에 이르게 되셨다는 것이다. 당신을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맡기신 성모 마리아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셨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잉태되시는 순간부터 마지막에 이르시기까지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신 분이심을 드러낸다. 그러나 성모 승천 교의는 마리아를 위해서만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성모 마리아의 근원적인 구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과 그 충만함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인들이 '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이라는 희망이 마리아에게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올바른 성모신심, 25-26쪽>